국군의 월남파병

(1964~1973)



작전중인 파월 장병들

국군 파월

미국은 월남전에 깊이 개입하면서 많은 병력이 소요되자 월남에 자유세계 군사원조단(Free World Military Assistance Force)을 창설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자유우방 25개국에 대하여 월남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월남파병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보다 확고한 미국의 보장과 국군의 월남파병을 조건으로 그 동안 감소되었던 대한 군사원조의 증액 및 군사원조 이관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국방부는 1964년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아시아의 평화와 자유수호 및 자유 월남에 대한 공산침략의 저지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자유우방국들이 우리를 도와 준 데 대해 보답한다는 목적을 갖고 국군의 월남파병을 결정하였다.

제1차 파병

제1차 파월부대는 1964년 9월 11일 우리 해군 LST편으로 출국하여 동월 22일 월남 사이공 동쪽 붕타우(Vung Tau)에 도착하였고, 그중 제1이동외과병원은 월남 육군정양원에서, 태권도 교관단은 월남 육군보병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임무를 개시하였다.

제2차 파병

1964년 12월 18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국군 추가파병을 요청하였으며, 월남정부도 1965년 1월 2일 국군의 증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5년 1월 28일 육군 제101경비대대, 제127공병대대, 제801수송자동차중대 및 해병 제1공병중대로 편성된 주월 한국 군사원조단을 창설하는 한편, 해상수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 LST 812함과 813함을 파견하였다.

주월 한국군 군사지원단은 1965년 3월 16일 디안(Di An)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기파견된 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을 배속받아 지휘하였다.

제3차 파병

미국은 월맹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가일층 북폭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전에서도 확전을 단행하고 한국 정부에 전투병력의 증파를 재요청하였다.

1965년 8월 13일 국회가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을 동의하자 국방부는 파월부대로 수도사단의 2개 연대, 해병 제2여단, 군수지원사령부 및 주월 한국군 사령부를 편성하였다.

이들 부대 중 수도사단은 10월 26일 월남 중부 퀴논에 상륙하여 1,200㎢에 달하는 전술책임지역을 인수하고, 해병 제2여단은 월남 중부 해안인 캄란에,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사이공에서 1965년 10월 20일 지휘소를 개설하고 작전을 개시하였다.

제4차 파병

제4차 파병을 요청받은 우리정부는 국가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고 월남에 증파될 부대로 제9사단(백마부대)과 수도사단(맹호부대) 보충연대인 제26연대(혜산진부대)를 선발하였으며, 혜산진부대가 1966년 4월 16일 퀴논항에 도착함으로써 맹호부대는 완전 편성된 전투사단이 되고, 백마부대는 마지막 제대가 10월 8일 월남 캄란에 도착함으로써 주월 한국군의 병력은 총 4만 8천여 명에 달했으며,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예하에 야전사령부와 군수지원사령부를 거느린 군단 편제 규모로 증강되었다.

주월 한국군의 철수

미군 및 연합군의 월남에서의 철수방침에 따라 주월 한국군은 제1단계로 1971년 12월 4일 해병 제2여단의 철수를 시작으로 제100군수사령부 등 10,000명을 철수시켰다.

또한, 1973년 1월 27일 미국·월맹 간의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자 제2단계로 1973년 1월 30일 선발대 125명의 항공편 철수를 시작으로 11개 제대로 편성된 본대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후발대 118명이 3월 23일 철수함으로써 병력철수가 완료되었다. 장비는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군 및 월남군에게 인계하였으며 일부는 본국으로 해상수송되었다.

파병성과

국위선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주월 한국군은 농경지원, 교량 및 학교건설, 도로건설 등의 대민지원활동을 통해 월남국민들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는 평화의 십자군으로서 국위를 선양하였다.

전투경험의 축적

한국전쟁의 전투경험자가 거의 군을 떠난 시점에서 312,853명이란 많은 인원이 M-16 자동소총, APC 장갑차, 81미리 박격포, 신형 무전기 등 57개 품목에 대한 각종 현대장비의 조작 능력과 함께 풍부한 탄약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돌아옴으로써 산악전과 게릴라전에 대한 전투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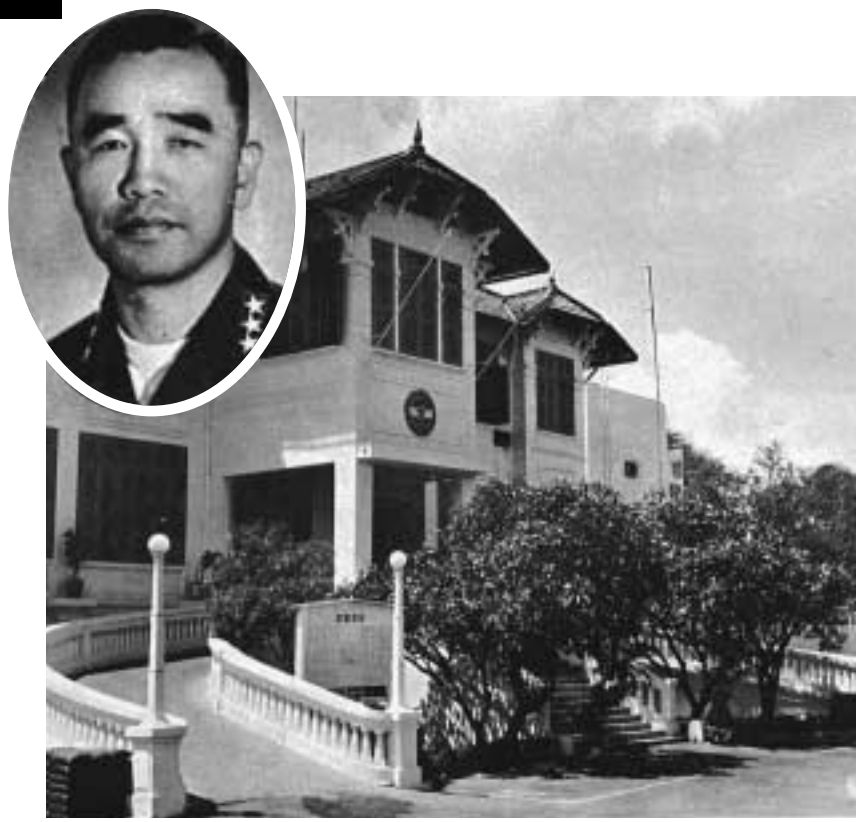
국가발전에 기여

월남참전을 계기로 우리 군은 대미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미국의 지지를 받는 동반자적 위치로 지위가 상승되었으며, 월남으로의 노동력 진출은 당시 총 해외취업자의 70%를 차지하여 고용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기술축적과 경험은 1970년대 중동 진출로 이어져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국방력 강화 촉진

국군의 월남전 파병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보장이 보다 확고하게 되었으며, 증액된 군사경제 원조액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월 한국군 사령탑



월남 사이공의 주월 한국군사령부 청사(1965. 9. 25)
원안은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 중장 채명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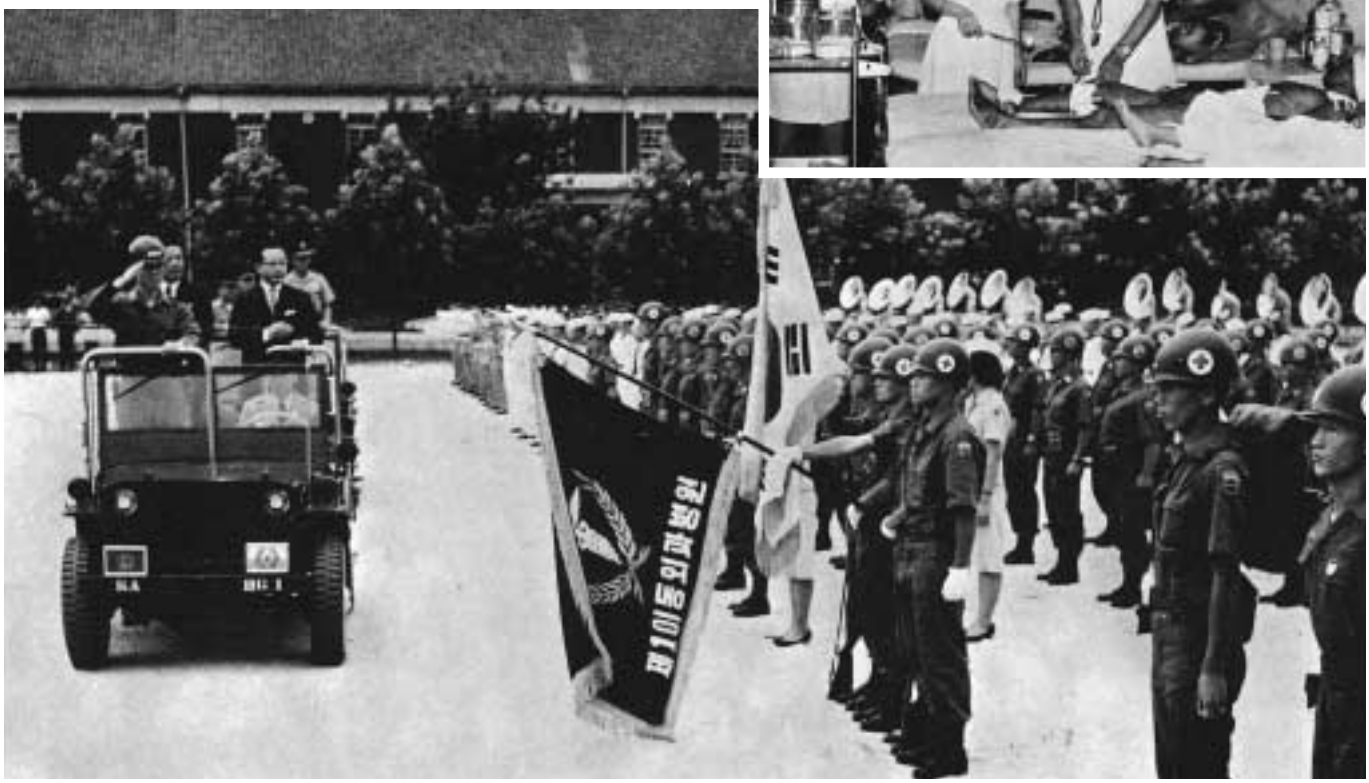
현지에서 직접 지시하는 지휘부
1968년 6월 1일 야전사령부가 월남 나트랑시에서 창설되었다.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파병

대민 진료광경





한국군 최초의 파월부대 제1이동외과병원 환송식

한 · 월 합동태권도 시범단의 사이공 시내 각 학교에서의 순회시범(1965. 3. 16)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비둘기부대는 도로건설공사를 비롯하여 교량, 학교, 진료소 공사와 태권도 지도 및 심리전 활동 등 주월 한국군의 개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비둘기부대 출국 환송식(1965. 2. 9)



비둘기부대가 건설한 대한교
(1965. 6. 24)



구정공세로 인하여 폐허가된 사이공시내 페더론스키 지역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해 건립하는 500여 동의 주택 (1968. 1. 29)



수중에서 교각을 세우는 공병들



비둘기 용사에 의해 준공된 사이공시 환상도로



국립유자녀학교 도서실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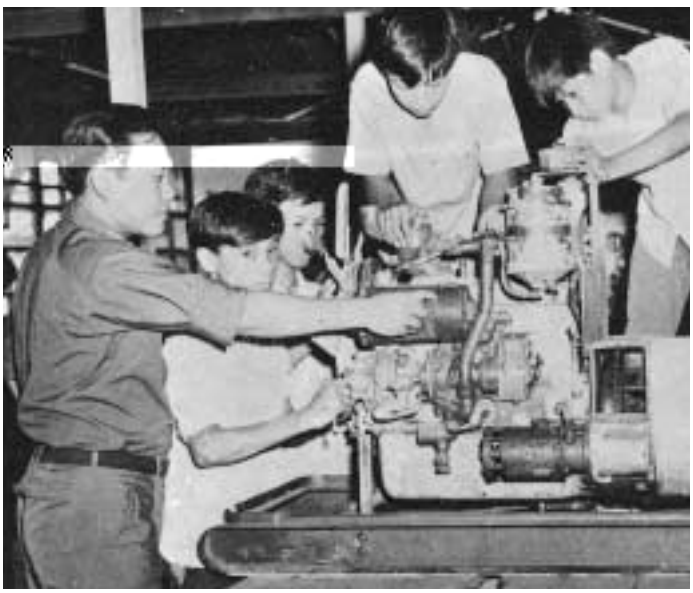
푸토아 면사무실 준공(1969. 7. 17)



비엔호아 초등학교 교실 준공식(1969. 10. 8)



사이공시 공화로터리에 어린이 놀이터 준공(1970. 2. 11)



한국군 교관으로부터 기술습득

청룡부대

1965년 9월 20일 창설되어 한국군 전투부대 선봉으로 1965년 10월 3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파월의 장도에 오른 청룡부대는 1965년 10월 9일 자유월남의 캄란만에 상륙한 이래 투이호아, 추라이, 호이안 등의 전장을 전전하며 여단급 작전에서 소대급 작전에 이르는 14만여 회의 대소 작전을 전개하여 다대한 전과를 올렸다.



▲ 월남 캄란만에 상륙한 청룡부대 지휘관들(1965. 10. 9)

▼ 청룡부대 결단식(1965. 9. 20)







화염방사기로 밀림지 탐색

밀림의 진격

용감하고 사기충천한 청룡용사들





짜빈동 대첩 노획품(1967. 2. 15)



고무보트로 육지를 왕래하면서 무기 인양(용두 1, 2호 작전)



전함에서 상륙군을 직접 수송하는 헬기(승룡 15호 작전)



늪지 탐색작전

태로이 매복전에서 청룡분대 매복조가 적 40여 명을 사살하였다.





베리아 반도 피란민 이송



수중 폭파장치



작전중인 청룡부대 용사들

박격포 진지



맹호부대

1965년 10월 22일 월남 중동부 해안 퀴논에 상륙한 맹호부대는 제101공수여단 및 미 해병 제7연대로부터 1,200㎢의 전술책임지역을 인수한 후 1966년 3월 23일 최초 사단급 작전인 맹호 5호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베트콩이 10년간 지배해 오던 지역을 회복, 사단 전술책임지역을 1,400㎢로 확장시켰다.



퀴논에 상륙한 맹호 1연대(1965. 10. 22)

맹호부대의 상륙을 환영하는 퀴논 시민들 (1965. 10. 22)



보충부대 퀴논상륙(1966. 4. 22)





비호 6호 작전중 밀림소탕



헬리콥터로 목표지역 투입(1966. 6. 4)



베트콩 마을을 향해 보병을 유도하며 진격하는 맹호 장갑중대 용사들



대창과 부비트랩으로 된 함정



철조망과 교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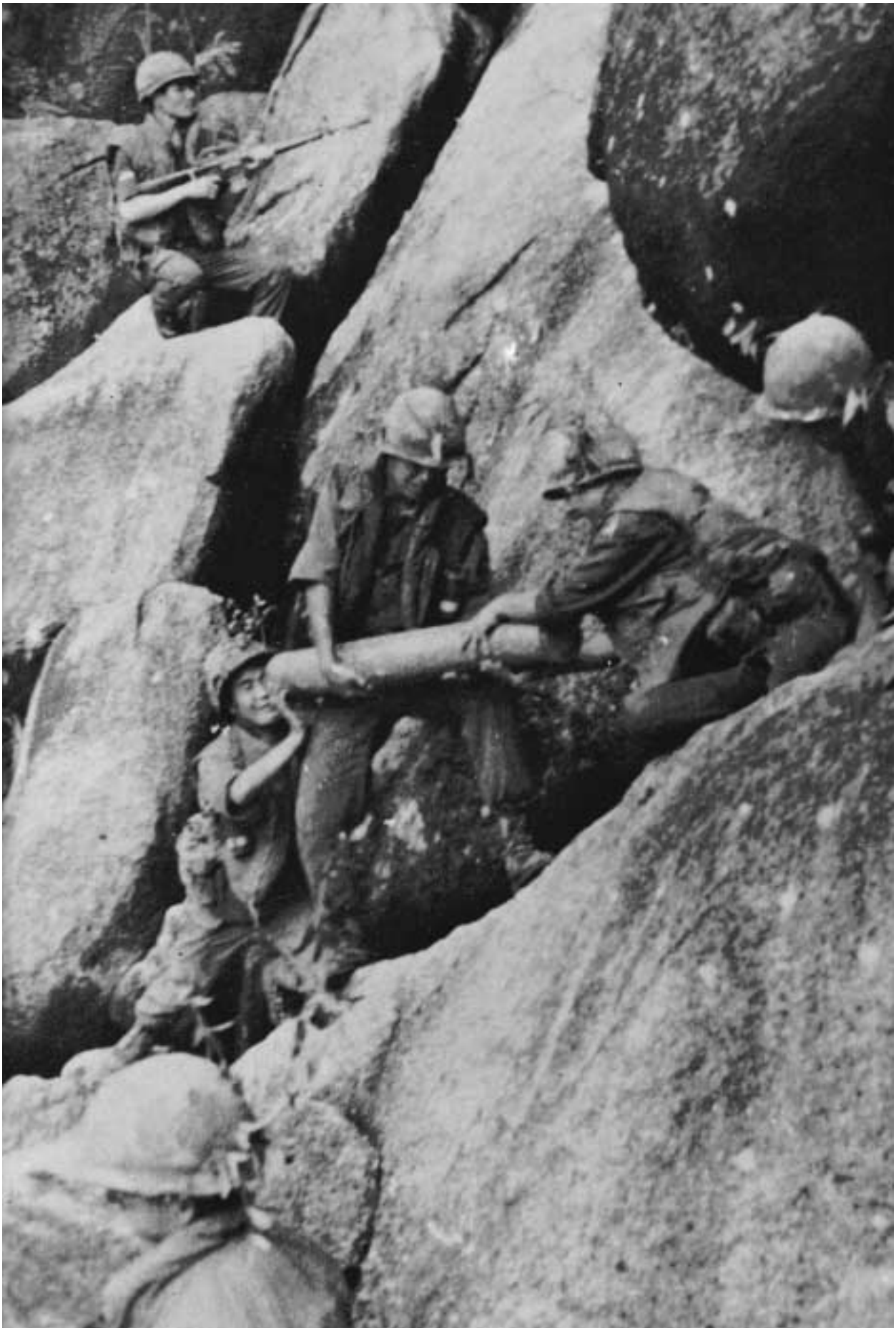
57미리 무반동총을 어깨에 메고(1967. 3. 15)

벗이여 평화의 사자되라



포사격으로 민둥산이 된 안케-패스 격전지 638고지(1972. 4)





은닉무기를 찾고있는 맹호용사들





혜산진부대가 건립한 대민진료소
혜산진작전 종료 후 피란민을 돕고 있는 맹호 제26연대
맹호부대가 대민사업 일환으로 건립한 호아다촌 전경



백마부대

1966년 10월 20일 백마부대는 투이호아로부터 핀란까지 길이 270km, 폭 약 50km의 광대한 전술책임지역을 인수한 후 1967년 1월 29일 처음으로 사단급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중앙청 광장의 백마부대 파월결단식(1966. 8. 27)

백마 1호 작전중

나트랑 서북방 20km 지점에서 헬기로부터 랜딩하는 백마용사



백마 1호 작전중

동굴 내의 적을 색출하기 위하여 가스를 주입





비마 3호 작전에서 적 요새지를 수색하는 제29연대(1967. 1. 20)



리엔칸부락 전투시 적진 속에서 어린이를 구출하고 있는 백마 제30연대 장병(1967. 11. 27)

월남평원을 누비는 헬리콥터들





⬆ 화력집중점을 향하여(도깨비 21호 작전)

⬇ 전진 개시(도깨비 21호 작전)





어느 병사의 표정



귀순 권고 방송을 하고 있는 백마용사들

제100군수사령부

수도사단 예속의 군수지원사령부가 1966년 6월 1일부로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로 개편됨에 따라 동년 8월 14일 제1군수지원단이, 9월 7일 제2군수지원단이 증파되었으며, 사령부도 퀴논으로부터 나트랑으로 이동하였다.



병참중대 유류 수송작업



탄약중대 포탄적재 광경



닌호아와 투이호아 간의 1번 도로 개통(1966. 12. 8)
군수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제100군수사령부 보급차량



병력수송

통신기재 정비실의 작업광경





전방 각 OP에 급수를 지원



전투식량의 공수



병참중대 관리하의 각종 보급품

태양열로 뜨거워진 갑판에서



전투장비를 가득 적재한 수송함





사이공항 13부두에서 식량을 적재하고 있는 808함



월남군 병력을 수송하는 607함(1966. 5)



메콩강을 순항하는 백구부대

은마부대

한국군의 월남파병에 따른 공수임무의 증가로 C-54를 도입하여 1966년 10월 17일 여의도기지에서 공수부대(일명 은마부대)를 창설하고 한·월간 정기 공수임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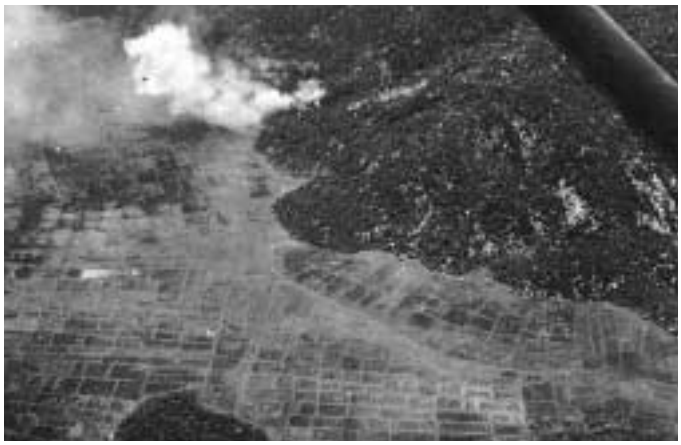
은마부대 창설

공군지원단 창설

주월 한국군사령부 공군지원단은 야전사령부에서 수행하던 전술항공 지원임무와 주월 한국군사령부에서 담당하던 항공수송 지원임무를 흡수하여 1967년 7월 1일 C-46 미 항공기 파월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작전 지원과 부대운영을 위하여 창설되었다.



정찰출격 직전에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 · 미 공군



FAC 요원 유도에 의해 정확한 대지공격 수행

한 · 월간 정기 수송기





화물 공수활동



군사우편물 공수활동

환자 공수활동



파월국군 철수



환송의 깃발을 흔드는 베트남 시민들

조국 땅에 첫발을 내딛는 개선장병들





파월개선장병 환영

개선 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파월 전몰용사들을 추모하는 군 지휘부

